

영혼 돌봄의 정치: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

발표자 : 박성우 (서울대, 정치외교학부)

“영혼 돌봄의 정치” 왜?

- ▶ 개인적으로는 “무턱대고 플라톤 연구 ” 로부터 현대정치와 연결된 플라톤 연구로의 전환
- ▶ 현대 정치에 대한 진단: 자유주의의 한계-좋은 삶의 추구의 논의의 실종과 상실
- ▶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(ex. 공동체주의, 공화주의, 다문화주의, 세계 시민주의 등)가 존재하나, 좋은 삶이 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
- ▶ 특히 한국 사회는 가치다원주의의 왜곡 → 사실상 가치말살주의, 획일적 물질주의 → 정치는 그 연장선 상에서 협소화, 빈곤화
- ▶ 좋은 삶 (플라톤의 용어로는 영혼 돌봄)이 정치의 장으로 되돌아 와야
→ How? 플라톤 정치철학의 현대적 부활, 플라톤적 영혼 돌봄의 정치

“영혼 돌봄의 정치”란 무엇인가?

- ▶ 소극적인 주장: 영혼 돌봄(좋은 삶의 추구)이 정치의 장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.. & 정치의 목적 중에 영혼 돌봄이 포함될 수 있어야...
- ▶ 적극적인 주장: 영혼 돌봄(좋은 삶의 추구)이 정치의 목적 중 가장 본질적인 것
- ▶ 영혼 돌봄이란?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내적 추구 과정, 지속적인 삶의 방식(way of life)의 유지로서의 영혼 돌봄
- ▶ 플라톤적 영혼 : 이성, 기개, 욕구
- ▶ 플라톤적 영혼 돌봄 :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삼분된 영혼의 내적 관계,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남
- ▶ 플라톤적 영혼 돌봄의 정치 : 이러한 영혼 돌봄이 정치 과정에서 달성되어야...
- ▶ 플라톤 시대의 영혼 돌봄 vs. 현대 사회의 영혼 돌봄 (신비주의, 주변화, 私事化)

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와 영혼 돌봄의 정치

(플라톤 연구의 논쟁점들)

- ▶ 플라톤 정치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영혼 돌봄의 정치를 주창하고 있는가를 해명해야... 그 전에 플라톤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논쟁점에 관하여 주목해야...
- 1.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 (Socrates Problem): 소크라테스의 저술이 없음
- 2. 역사적 소크라테스 (historical Socrates)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(Platonic Socrates)의 관계
- 3. 플라톤 저술 (Platonic Writing)의 독창성과 플라톤 읽기 (Platonic Reading)
- 4. 플라톤 사상에 진화가 있는가? (발전주의적 해석)
- 5. 정치철학이 플라톤 사상의 중심인가? 수학? 형이상학?
- 6. 플라톤 정치철학과 유토피아 문제

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와 영혼 돌봄의 정치

- ▶ 주장: 플라톤 정치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했고, 이에 대한 플라톤의 독자적인 대응은 영혼 돌봄의 정치로 귀결됨
- ▶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플라톤 정치철학의 출발점 → 단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가 아니라,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를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발견 → 정치와 철학의 갈등이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
- ▶ 플라톤의 대화편 저술 방식은 단순한 문학적 창의력이 아니라, 정치와 철학의 갈등을 전제로 정치철학을 개진하기 위한 기술 (art of writing) → 플라톤 해석을 위해 분석철학적 접근은 부적합 → 총체적, 드라마적 해석이 요구됨
- ▶ 영혼 돌봄의 정치도 플라톤 해석의 결과물이지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이 아님 → 가시적인 정치제도의 개혁이 아니라,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한 정치개혁
- ▶ 영혼 돌봄의 정치의 관점에서 플라톤적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중심 주제와 거리가 있음

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소크라테스

<변론> <크리톤> <메넥세네스> <알키비아데스>

- ▶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해석 : 소크라테스라는 개인과 아테네 민주정의 갈등이 아니라, 정치와 철학의 보편적 갈등 (좋은 삶의 추구는 정치와 철학의 불가피한 갈등을 초래)
- ▶ 좋은 삶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? <변론> <크리톤>
 - 좋은 삶과 시민성의 균형
 - 법의 지배와 시민불복종 문제
- ▶ 좋은 삶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의 확대 (국제정치, 제국): <메넥세네스>
 - 자유주의 제국의 패러독스, 지나침이 없는 삶 = 관조적 삶의 일상화
- ▶ 좋은 삶이 관여하는 돌봄 (epimeleia)의 범주 : <알키비아데스>
 - 진정한 의미의 지배= 영혼 돌봄, 자기 돌봄, 국가 돌봄, 대외관계, 우주적 이해
 - 영혼 돌봄의 첫 번째 단서

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

수사학의 활용 가능성 <고르기아스> : 영혼 돌봄의 場을 타진함

- ▶ 가장 세속적인 주제로부터 출발- 수사학을 통한 성공적인 정치인 되기 (고르기아스)
- ▶ 삶의 방식/세계관의 대립에 대한 私的 대화 (폴로스)
- ▶ 내적 지배 (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)의 문제로 귀결 (칼리클레스)
- ▶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장에서 영혼 돌봄의 실천 가능성을 매우 독특한 주장을 통해 제기함
- 페리클레스 식 정치 (공공선의 정치)를 비판
- 소크라테스 자신 만이 “진정한 정치가”로 선언
- 공공선의 정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,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: 영혼 돌봄의 정치의 선언 * 두 번째 단서

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

국가-영혼 유추와 이상국가 문제 <국가, 정체>

- ▶ <국가> 2권~4권 에서 영혼 유추의 효용- **영혼 돌봄의 정치를 위한 세 번째 단초**
 - ▶ 유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한 검토: 영혼 돌봄은 삶의 방식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정체 구성의 문제
 - ▶ 분석적 접근은 플라톤이 왜 이런 장치를 삽입한 의도에 접근하지 못함
 - ▶ <국가> 8권~9권의 타락한 정체에 관한 논의에서도 영혼 돌봄과 정치의 관계 조명
 - ▶ 특히 민주정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의 공존 가능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점진적 개혁이 가능할 수 있음
- ▶ 철인왕과 이상국가
 - ▶ 이상국가론의 한계를 스스로 지적: 이상국가의 청사진으로서의 정치철학에서 영혼 돌봄을 통한 점진적 정치개혁의 정치철학으로
 - ▶ 철학자와 비철학자의 조화: 철학적 삶의 정치적 의의

영혼 돌봄의 정치의 현대적 실천 가능성?

- ▶ 정치의 본질에 대한 선언적 주장 이상의 의미
- ▶ 철학적 삶의 부활? → 세계시민적 삶, 종교적 삶의 재평가
- ▶ 정치적 삶의 부활? → 건전한 시민생활을 통해서도 좋은 삶의 추구가 가능 → 점진적 정치개혁 →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는 민주적 시민(민주주의의 내실화)
- ▶ 자연스럽게 정치의 본질이 좋은 삶의 정치, 이를 위한 삶의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, 영혼의 돌봄에 수렴
- ▶ 지나친 낙관주의인가? → 정치 제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, 교육을 통해 의식의 전환이 가능 (교육을 통한 점진적 정치개혁)

Next Project ?

신학-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서의 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

- ▶ 플라톤 정치철학이 한편으론 정치와 철학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하지만, 다른 한편으론 철학과 종교(신학)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주목
- ▶ 철학과 종교의 갈등이 왜 정치철학을 낳는가?
 1. 정치와 철학의 갈등에 이미 종교와 철학의 갈등이 내재해 있음 (ex. 소크라테스의 불경죄). 그러나 이 갈등은 종교와 정치의 결합으로 인해, 종교를 포함한 정치와 철학의 갈등으로 해석
 2. 그러나 종교는 보다 근본적으로 철학에 도전할 수 있고, 철학은 종교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
→ 계시, 기적, 초자연적인 현상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, 이것들은 굳이 이성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 (이성적 설명으로 입증된다는 것은 철학적 결정이지 종교적 결정이 아님)
 3. 따라서 종교는 신학적으로 철학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음
 4. 영혼 돌봄의 정치철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학적 도전에 응전해야 함
- ▶ 플라톤은 이러한 신학적 도전을 인지하고 정치철학을 전개함 (플라톤 정치철학의 두 번째 축)
 - ▶ <법률>은 신학의 도전에 대한 플라톤 정치철학의 응전: 신실한 세 노인이 신법에 가까운 크레타 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
 - ▶ Cf. 케팔로스가 떠난 <국가>